

# 김정일 위원장, 「민속음식 품평회」 현지지도

## 1. 개요

-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'조선요리협회'가 주최한 「민속음식 품평회」에 김 위원장이 바깥에서 참가하여 지도하였음.(6.26, 중방)

-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, 김국태, 정하철, 김기남을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동행함.

※ '조선요리협회'는 김 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1992년 설립된 김 위원장으로서 요리부문에 대한 전반적 기술지도를 관장하며 요리경연, 요리사 강습, 요리품평회 등을 주관

## 2. 보도요지

- 김 위원장은 옥류관, 청류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민속음식들과 그에 따르는 집기류들, 각종 참고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 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

- 민속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급양부문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음.

- 김 위원장은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민속음식 유산을 옹호 살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

- 민속음식을 적극 발굴, 발전시키는 것이 식료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음.

- 또한, 민속음식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자면 요리사들과 이 분야의 과학자·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
  - 우리의 고유한 민속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.

### 3. 분석

- 북한은 최근 사회·문화 각 분야에서 '민족적인 것'을 적극 살려 나갈 것을 지속적·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
  - 음식부문에서도 '민속음식', '민족요리'라 하여 이의 개발과 보급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장려해오고 있음.

※ “민족요리는 단순한 식생활이 아니라 민족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”(03.2.14, 평방)

- 특히, 북한은 '90년대 중반부터 민족요리 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7.1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음식문화 발전사업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전개해왔음.

※ 단오를 맞아 전국 각지 협동농장 등에서 민속음식 품평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(6.22, 중·평방)

- 민족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「민속음식품평회」 현지지도는
  - 요리사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·격려함으로써 동 사업을 추진하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
  - 주민들에게는 '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'을 내세워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민 식생활 개선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.